

■ (언론 동향) 2022.5.11. "연합뉴스" 보도

○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"농업계와 CPTPP 소통..."

- 취임식서 소통 강조...농업직불금 확대-개식용 종식 로드맵-쌀가루 산업화 약속

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"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"며 이같이 약속했다.

CPTPP 가입, 낙농제도 개편, 가축농가 방역 강화 등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둘러싸고 '불통 행정'이라는 농민들의 비판과 반발이 거센 만큼 신임 장관으로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.

정 장관은 이어 "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늘리겠다"며 "기본 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택직불제를 확대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그러면서 "농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밭 기계화, 비료 할인공급, 사료 할당관세 물량 확대를 추진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정 장관은 식량주권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"밀과 콩의 생산기반을 늘려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확대할 것"이라며 "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정 장관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 기술, 가공 유통체계의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.

정 장관은 이와 함께 "농업계와 힘을 모아 탄소중립형 농업,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위해 노력할 것"이라며 "분야별로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활성화해 농산물 가치사슬 전(全) 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도록 할 것"이라고 약속했다.

< 이영섭 기자 >